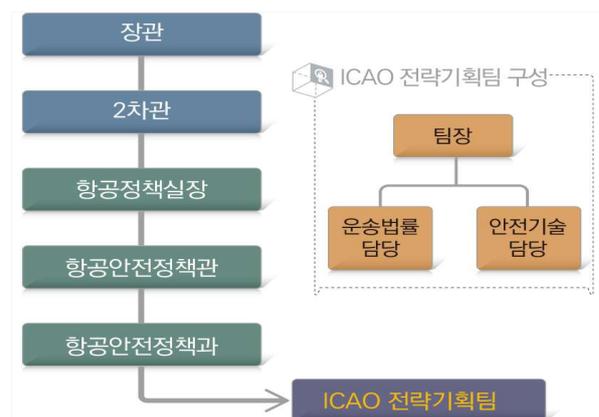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05. 05(화) 총 5매(본문3)	
담당 부서	항공안전 정책과	담당 자	• 과장 김상수, 서기관 이호진, 주무관 손경화 • ☎ (044) 201-4244, 4252, 4249
보 도 일 시		2020년 5월 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5(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항공운송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위한 ICAO전담조직 출범 국토부, ICAO전략기획팀 신설...국제항공정책 선도 글로벌강국 도약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CAO전략기획팀(ICAO and Global Partnerships)'을 5.6일부로 신설하여
 - 25년 만(2002년 이후)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상향 기회에 도전하여 우리항공의 국제위상을 제고 할 것이라 밝혔다.
 - *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44년 국제민간항공 협약을 근거로 '47년에 설립된 UN산하 항공전문기구(우리나라 '52년 가입, ☞참고1)
- 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 * 팀장 1명, 운송법률 담당 2명, 안전기술담당 2명 등
 - 기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하던 국제협력업무를 이관 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기준·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 신설팀의 주요업무는 ①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②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ICAO현안 대응, ③ 국제네트워크 강화, ④ 대외원조사업의 전략 추진, ⑤ ICAO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이다.

【ICAO전략기획팀 조직도】



□ ICAO는 국제항공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로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이사회*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II·III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되어 이를 운영한다.

* 이사회: 정책·기준·예산 등을 상시 심의하고 결정. 매 3년 선출되는 36개 이사국으로 구성 (파트 I: 주요 운송국 11개, 파트II: 항행시설 설치 공헌국 12개, 파트III: 지역 대표국 13개)

○ 미국·프랑스 등 항공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나라들은 ICAO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이사국 파트 I 지위를 유지하며,

- 이를 활용하여 자국 산업발전에 유리한 국제정책·기준 등을 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

○ 시카고협약 체결(1944년) 75년이 지난 오늘날, 전통적 항공강국들이 속한 파트 I·II 등 상위 파트의 이사국 선거구도는 안정단계*이나,

- 파트 III은 이사국 선거 때마다 경쟁이 치열하여, 보다 안정적인 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이사국 정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파트 상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상위 파트 이사국들은 지위 유지를 위해 현 이사국 연임(status quo, 상호지지) 선호. 따라서, 파트I·II 정수 증가를 제외한 이사국 신규진출은 어려운 실정(☞참고2)

□ 우리나라는 1952년 ICAO가입 이후, 약 50년 만인 2001년에 처음 이사국(파트 III)으로 선임되어 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항공운송규모 6위, ICAO분담금 11위 등 파트 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성장을 이루고 세계 186개 도시('19년 기준)를 운항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규모(출처: ICAO)】



- 따라서, 이제는 현재 항공산업 규모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우리산업의 권익보장을 위해 국제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 ICAO전략기획팀은 우리나라가 항공의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하도록 국제항공정책 선도, 국가신인도 제고,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며,
 - 향후 약 10년 앞으로 다가온 ICAO이사국 정수 확대*(36→40개 국가)를 기회로 삼아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다.
 - * 2016.10월, 제39차 ICAO총회는 이사국 정수를 36개에서 40개로 증가하기로 결정 (국제민간항공협약 제50조 개정/회원국의 2/3 이상 비준 시 시행, 우리나라 '20.4월 비준)
 - 이사국 파트별 정수배분은 개정 조항이 회원국으로부터 비준이 된 이후, 별도의 이사회 검토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 예정

【ICAO이사국 정수 변화(출처. ICAO)】

이사국 정수 변화	협약 개정		협약 시행	
	개정일	회원국	시행일	회원국
21→27개	'61.06.21	87개	'62.07.17	98개
27→30개	'71.03.12	120개	'73.01.16	125개
30→33개	'74.10.12	129개	'80.02.15	156개
33→36개	'90.10.25	162개	'02.11.28	188개
36→40개	'16.10.01	191개	-	-



-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1954년 첫 정기 국제노선(김포-대만-홍콩) 운항 이후, 세계적 규모로 성장한 우리의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 할 시기”라며,
 - “ICAO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항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ICAO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할 것”이라고 업무추진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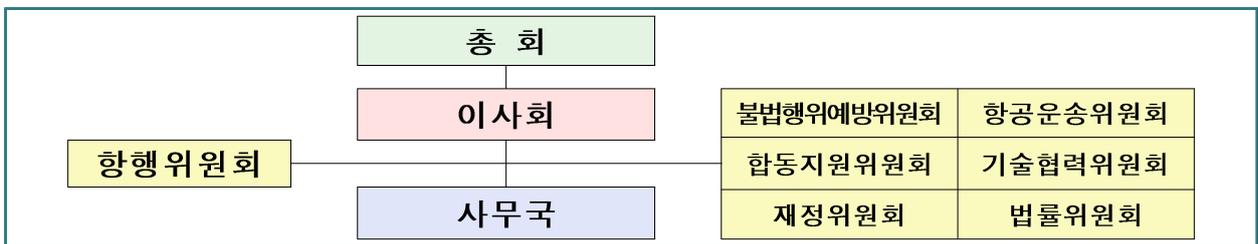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이호진 서기관(☎ 044-201-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개요

- **설립목적** : UN산하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합리적인 발전을 보장·증진('47.4.4 설립, '52.12.11 우리나라 가입)
- **설립근거** :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44.11.1 제정) 제43조로 “본협약에 의하여 국제항공기구라는 기구를 조직한다.”라고 규정
* '44.12.7, 시카고에서 52개국 서명('47.3월 비준 완료). 총96개 조문(+3개 bis)
- **조직구성** : 총회, 이사회, 사무국, 전문위원회(7), 지역사무소(7)



① 총회 : 이사국 선출, 회원국 분담금·예산 및 협약 승인 등

- ◇ (時·所) 매3년 개최('19.10월 제40차 총회), ICAO본부(캐나다 몬트리올)
- ◇ (참가대상) 193개 ICAO 회원국,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회(ACI) 등 항공관련 대표 1,300여명
- ◇ (의제) 이사국 선거, 향후 3년간 예산확정 등 80여개 의제
- ◇ (운영) 본회의, 5개 위원회(집행위·기술위·경제위·법률위·행정위)

② 이사회(총회 3년마다 선출, 36개 회원국 구성) : 항행위원회 설치, 부속서(19개 분야) 심의 등 실질적인 업무수행

Part I (11국)	협약	항공운송에 있어 중요한 국가
	이사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
Part II (12국)	협약	항행안전시설 설치로 국제항공에 공헌한 국가
	이사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집트, 인도, 네덜란드, 멕시코, 나이지리아, 사우디,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핀란드
Part III (13국)	협약	Part I, II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로서 세계 모든 지역 대표할 수 있는 국가
	이사국	대한민국, 그리스,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튀지니, UAE, 파라과이, 코트디브와라, 잠비아,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적도기니, 수단

* 한국은 33차 ICAO 총회('01.9)에서 처음 이사국 Part III에 진출, 35차 총회('04.10) 재선, 36차 총회('07.9) 3선, 37차 총회('10.10) 4선, 38차 총회('13.9) 5선, 39차 총회('16.10) 6선, 40차 총회('19.10) 7선

③ 전문위원회 : 이사회의 분야별 위원회(총 7개)

- **항행위원회(19인)** : 협약 부속서 제·개정 등 국제항공안전 분야의 모든 기술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ICAO 내 핵심 위원회
 - * 한국 항행위원 최초 진출('05.11), 재선('07.12), 3선('10.11), 4선('13.11), 5선('16.11), 6선('19.11)
- 그 외 항공운송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위원회, 합동지원위원회 및 불법행위예방위원회 운영

④ 사무국

- 조직구성 : **5국** (항행국, 항공운송국, 기술협력국, 법률국, 행정국),
- 지역사무소 : **7개**(방콕, 카이로, 다카, 리마, 멕시코시티, 나이로비, 파리) 및 **1개** 아태 분사무소(북경)

□ ICAO 전체예산

(단위 : 1천 CAD)

년 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예산액	88,727	92,752	94,737	99,049	99,764	101,072	99,049	103,312	106,946	112,457
원화 환산	796억	832억	약 850억	약889억	약884억	약891억	약908억	약929억	약952억	약1,000억

□ 우리나라의 정규 분담금 납부현황(외교부 소관)

(단위 : 만불 CAD)

년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순위	9	9	9	10	10	10	12	12	12	12	12	12	11
분담율	2.45	2.37	2.37	2.41	2.41	2.41	2.18	2.18	2.18	2.18	2.18	2.18	2.21
금액	182	176	188	197	203	214	202	207	216	218	220	216	225

* 우리나라의 ICAO 분담금은 ICAO 총 예산의 2.21%('20-'22년, 제40차 총회에서 결의)

** 미국(20.50%)—중국(11.39%)—일본(6.64%)—독일(5.08%)—영국(4.19%)—프랑스(3.66%)—캐나다(2.51%)—이탈리아(2.44%)—브라질(2.27%)—러시아(2.23%)—한국(2.21%)—UAE(2.17%)順

참고2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현황 (정수조정 시기 중심)

구분 (전체 정수)	파트 I	파트 II	파트 III	비고 (표: 파트별 정수)						
1947년 (21개)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네덜란드, 영국,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이집트, 인도, 아일랜드, 포르투갈, 중국* * '47년 Government of China	칠레, 체코슬로바키아, 이라크, 페루, 터키,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공식 이사회 · 카테고리 A, B, C로 구분 <table border="1"> <tr> <td>A</td> <td>B</td> <td>C</td> </tr> <tr> <td>8</td> <td>7</td> <td>6</td> </tr> </table>	A	B	C	8	7	6
A	B	C								
8	7	6								
1956년 (21개)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집트, 인도,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아일랜드, 레바논, 포르투갈, 스페인, 남아공, 베네수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조정 없음 · 파트 I, II, III 구분 도입 <table border="1"> <tr> <td>I</td> <td>II</td> <td>III</td> </tr> <tr> <td>8</td> <td>7</td> <td>6</td> </tr> </table>	I	II	III	8	7	6
I	II	III								
8	7	6								
1962년 (27개)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독일, 인도, 레바논, 일본, 멕시코, 스페인, 통일아랍공화국	콜롬비아, 콩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말라가시공화국, 튀니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27개로 정수 증가 <table border="1"> <tr> <td>I</td> <td>II</td> <td>III</td> </tr> <tr> <td>9</td> <td>9</td> <td>9</td> </tr> </table>	I	II	III	9	9	9
I	II	III								
9	9	9								
1974년 (30개)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영국, 소련,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이집트, 스웨덴, 인도,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스페인	콜롬비아, 케냐,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트리니다드토바고, 유고슬라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30개로 정수 증가 <table border="1"> <tr> <td>I</td> <td>II</td> <td>III</td> </tr> <tr> <td>10</td> <td>10</td> <td>10</td> </tr> </table>	I	II	III	10	10	10
I	II	III								
10	10	10								
1980년 (33개)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영국, 소련,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덴마크, 이집트, 인도, 레바논,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스페인, 베네수엘라	알제리, 콜롬비아, 이라크, 자메이카, 체코슬로바키아, 카메룬, 인도네시아, 세네갈,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파키스탄, 엘살바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33개로 정수 증가 <table border="1"> <tr> <td>I</td> <td>II</td> <td>III</td> </tr> <tr> <td>10</td> <td>11</td> <td>12</td> </tr> </table>	I	II	III	10	11	12
I	II	III								
10	11	12								
2002년 (36개)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스웨덴, 이집트, 인도, 아일랜드,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남아공	한국, 알제리, 카메룬, 코스타리카, 쿠바, 체코, 에티오피아, 레바논, 모리셔스, 파키스탄, 파라과이, 세네갈,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36개로 정수 증가 · '01년 선거 결과에 3개국(밀줄) 추가 <table border="1"> <tr> <td>I</td> <td>II</td> <td>III</td> </tr> <tr> <td>10</td> <td>13</td> <td>13</td> </tr> </table>	I	II	III	10	13	13
I	II	III								
10	13	13								
2004년 (36개)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 미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이집트, 핀란드, 인도, 멕시코,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칠레, 에티오피아, 가나, 온두라스, 헝가리, 레바논, 모잠비크, 파키스탄, 페루, 한국, 세인트루시아, 튀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 I, II 정수 재배분 <table border="1"> <tr> <td>I</td> <td>II</td> <td>III</td> </tr> <tr> <td>11</td> <td>12</td> <td>13</td> </tr> </table>	I	II	III	11	12	13
I	II	III								
11	12	13								